

중국,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

저에너지 생산공정 · 나노기술 혁신성 높아 ... 한국은 5위 그쳐

중국이 기술분야에서 미국을 곧 넘어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컨설팅업체 KPMG가 글로벌 컴퓨터·전자산업 경영진 6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국이 미국을 1%포인트 차이로 기술혁신의 글로벌 거점이 될 국가로 꼽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(FT)가 6월27일 보도했다.

설문조사 응답자의 30%는 중국이 4년 내에 미국을 넘어서 독보적인 기술중심지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.

미국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%였으며 인디아(13%), 일본(8%), 한국(5%)이 뒤를 이었다.

중국기업은 게임 소프트웨어,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, 저에너지 생산공정, 나노기술 등에서도 혁신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.

KPMG는 중국기업이 제품·서비스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고급 소프트웨어, 인공지능 등 전문성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. 이와 함께 중국 경제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한편, 중국의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속이 꼽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6/27>